

## “한국은 약했다”... 한국 축구, 일본에 ‘0 대 3’ 완패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2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4회 연속 우승에 실패했다. 참가 수준의 경기력에 이해하기 힘든 벤투 감독의 ‘유체이탈 화법’도 논란이 됐다.



▲ 지난달 25일 일본 요코하마시 닛산스타디움에서 열린 한일전에서 대한민국 이강인이 일본 요시다 마야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지난 27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동아시아컵 3차전 일본과의 경기에서 0-3으로 완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다. 지난해 3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0-3으로 완패했던 한국 축구대표팀은 설욕은커녕 최근 2경기 연속 패배를 당한 것이다.

한국은 2003년 시작된 이 대회에서 최근 3회 연속(2015년, 2017년, 2019년) 및 통산 최다인 5차례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한국은 수비부터 공격을 전개하는 후방 빌드업을 고집하다 공을 빼앗기며 위기를 자초했고, 볼 배급이 원활하지 않자 무분별한 통패스를 남발하다 유효성은 단 한 개에 그쳤다.

투지도 전술도 없는 경기력에 비난이 쏟아진 가운데 경기 직후 벤투 감독은 ‘일본의 전력을 분석해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전술과 전략을 수립했으나 선수들이 이를 잘 이행하지 못해 패할 수밖에 없었다’며 일본전 패배가 선수들 때문이라는 듯한 인터뷰를 해 논란을 키웠다.

한편 일본 축구전문매체 사커다이제스트는 “한국은 너무 약했다. 이들이 알미를 정도로 강했던 시절이 있었던 만큼 서운하기도 하다.”며 한국의 졸전을 비아냥 거렸다.

## ‘커리가 농구를 망쳤어’에 대한 커리의 반응

스토펜 커리(골든스테이트)는 미국 프로농구(NBA)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다. 왜소한 피지컬을 가졌지만, 슈팅 능력으로 리그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대 최다 3점슛 성공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커리의 활약으로 3점슛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커리가 농구를 망쳤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커리는 ‘ESPN’과의 인터뷰에서 “나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변화가 있고 새로운 방식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난 내가 가져온 변화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바스켓코리아’에 따르면 커리는 2009~2010 NBA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데뷔했다. 데뷔 시즌부터 평균 17.5점 5.9어시스트, 3점슛 성공률 43%를 기록했다.

커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매년 성장했다. 그리고 2013~2014시즌에는 처음으로 올스타에 선정됐다. 이후 2014~2015, 2015~2016시즌에는 백투백 MVP를 수상했다. 또한, 2021~2022시즌에는 생애 첫 파이널 MVP까지 수상했다. 커리는 지금까지 8번의 올스타, 2번의 득점왕, 2번의 MVP, 1번의 파이널 MVP 등을 수상했다. 특히 커리의 3점슛 성공률은 42%다. 역

커리는 현재까지 3,117개의 3점슛을 성공했다. 이는 NBA 역사상 가장 많은 3점슛 성공 개수다. 이제부터 커리가 넣는 모든 3점슛은 NBA의 새로운 역사가 된다.

사진=ustodaysports

## LIV 골프, 내년에 몸집 불린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대립하고 있는 LIV 골프가 내년에 대회수를 더 늘리며 세계 남자골프 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을 보인다.

지난 2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LIV 골프는 전날, 내년에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대회를 14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창설한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은 8개 대회로 시즌을 치른다. 내년에는 대회가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날 전망이다.

총상금도 올해 2억5,500만 달러에서 4억5,0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한다. 대회 개최지도 호주와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지난 6월 출범한 LIV 시리즈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의 ‘오일 머니’를 앞세워 세계 남자골프계를 양분해온 PGA 투어와 DP 월드투어에 유력펀투어를 위협하고 있다. PGA 투어 정상급 선수들이 막대한 상금과 계약금을 앞세운 LIV 시리즈로 속속 이동하고 있다.

다만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출전 선수는 48명으로 변함이 없다. 그래서 선수 수급이 원활치 않았던 올해와 달리 출전자가 늘어날 내년 부터는 승강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시즌 종료 시점 상금랭킹 하위 4명을 LIV 골프에서 퇴출하고 빈자리는 자체 퀄리파잉스쿨을 치러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회 횟수 증가와 승강제 도입 등은 LIV 합류 선수들에게는 더 많은 대회에 출전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사진=reuters.com

###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월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29점	30점~39점
매월 프리미엄	\$499	\$274

####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2년 현재 170.10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를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719	\$2,309
Asset Limit	\$15,510	\$30,950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무료 상담 및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김 예 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 6400643@gmail.com